



진흥회 발족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최우선 과제로 추진 “2003년 쟁취한 공모제 방식 전통 계승해야”

노조는 차기 경영진 선임 방식과 관련,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모제 방식의 전통이 계승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뉴스통신진흥회가 발족될 경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는 수차례 집행부 회의, 조합원 및 사원들과의 공식·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대다수의 사원들이 차기 사장 선임문제와 관련,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모제 방식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13일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여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내년 상반기중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경영진에 대

한 추천권을 갖고 있는 진흥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서 “진흥회는 차기 사장 추천 문제와 관련, 진흥회 이사는 물론 외부인사와 연합뉴스 노조 등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모제 방식으로 차기 경영진을 추천할 경우 현행 7명의 진흥회 이사중 무려 5명을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추천하도록 돼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의 제도적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모제 방식은 지난 2003년 현 경영진 선임과정에서 시행한 바 있으며, 뉴스통신 진



27일 오후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집행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흥회 설립위원들이 작성한 뉴스통신진흥회 정관(안)에도 이사회는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할 때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와 신문협회, 방송협회 추천 몫 이사 5명을 포함, 7명의 진흥회 이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해외연수자 선발인원 임의변경 엄중 항의 장사장 “경영진의 명백한 잘못, 재발방지”

정재용 위원장은 회사가 2006년도 회사지원 해외연수자 선발과정에서 제작부문 선발인원을 당초 1명으로 공고해 놓고 임의로 2명으로 늘려 선발한 것과 관련, 경영진에 엄중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30일 장영섭 사장을 만나 “인력난 등을 이유로 내년도 해외연수자를 제작직의 경우 올해에 비해 1명을 줄여 제작·비제작 부문 각각 1명씩만 선발하겠다”면서 노조에 양해를 구한뒤 공고까지 그렇게 해놓고 사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선발인원으로 제작 2명, 비제작 1명으로 늘린 것은 노조와 사원들을 무시한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사장은 “선발인원을 늘리려면 채용공고를 한뒤 추가 공모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경영진이 절차상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는 지난 8월 9일 제작 비제작부서 각 1명씩을 내년도 회사 연수자로 선발하겠다고 공고를 한뒤 지난 9월 23일 임의로 제작 2명, 비제작 부서 1명을 해외연수자로 뽑은 바 있다.

10일부터 임·단협 설문조사 실시

노조는 금년도 임·단협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0월10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노조는 27일 열린 집행부회의에서 임금협상과 단체협상 기초 조사를 시작했으며 약 2주간에 걸쳐 과거 자료 검토, 단체협약 점검 등의 작업을 통해 설문조사 항목을 확정할 방침이다.(3면에 단체협약 개정 내용 및 임금인상 내역 참조)

노조는 설문조사를 통해 금년도 임금인상률 기대치를 비롯, 노동강도, 휴가사용 일수, 복지 문제 등을 물을 방침이다.

노조는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한 조합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임·단협안을 만들어 오는 10월20일께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안을 확정 한뒤 곧바로 회사측과 본격적인 임·단협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정재용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임·단협 성패를 좌우하는 원천적인 힘”이라면서 “빠짐없이 설문조사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위원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특파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0일 특파원 전원에게 메일을 보냈다.

노보만평

반종빈



● 임단협 설문조사 ● 의견 주십시오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앞두고 노조는 오는 10월10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왼쪽 기사 참조)

이를 위해 노조는 기존의 자료를 기초로 집행부회의 등을 거쳐 설문조사 항목들을 확정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준비기간 동안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에 대해 의견이 있는 조합원들은 노조 홈페이지나 노조 메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은 노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상은 2년만에 한번씩 진행되는 관계로 이미 변경되거나 폐지돼 실시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참여하는 조합원’이 되길 기대합니다.

현장, 현장 “부동산 잡다가 기자들이 잡힐 뻔”

“당신 누구 돈먹고 그따위 기사를 쓰는거야”, “도대체 참여정부는 누구편입니까, 공무원들은 머리가 있는 겁니까”, “야 이 XXX야, 내 집 똥값되면 니가 책임질래”, “기사 잘 봤습니다. 강북 서민들도 이제 힘이 납니다”, “전세가 안나가 죽겠는데 전셋값이 오른다니 현장 다녀봤나, 기자 놈들이”

4월 인사발령으로 건설교통부에 출입한지 5개월 가량 본인이 받은 전화나 e-메일 내용들이다. 격려의 메시지도 적지 않았지만 기사에 대한 질책도 많았다. 지난 5개월 부동산 시장이 겪은 그 역동성과 파행, 정책 혼선이 그만큼 개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어느 나라 국민보다 높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자신의 현물자산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집’ 이고 그 집(또는 땅)의 가격 동향이 인생 전체의 재산축적에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한 성인남자들은 부동산과 이를 통한 재테크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기사를 읽고 술자리건 어디서건 끊임없이 대화 주제로 끌어내곤 한다.

그런 탓에 부동산 기사는 쉽지 않다. 기사 한줄, 정부의 정책 하나에 수천만원, 수억원의 자산가치가 오르내리고,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몇모르고 기사 한 줄을 잘못 썼다간 댓글 공세와 전화폭언에 하루 종일 시달릴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기사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이고 기사를 읽는 독자의 열독성이 높다는 얘기가. 경제지들이 7~10명의 부동산부를 운영하고 최근 별도의 부동산팀을 구성하는 일간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부 언론의 경우 사시와 정치적인 관계로 시장과 정책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기사에 대한 변별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최대의 언론사를 자처하는 연합뉴스의 부동산팀은 고작 3명이다. 업무분장은 건설교통부 출입기자인 본인이 팀장을 맡아 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이정진씨와 윤종석씨가 업계와 시장, 인터넷 시세정보 업체, 관련 단체를 아우른다.

대부분의 정책기사들이 그렇듯이 부동산 기사도 정책이 하나 나오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며 이에따라 개인의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현장 취재를 소홀히 한채 머리만 갖고 기사를 쓰려 했다가는 해당 기자들과 업계, 시장에서 무시될까 마련이다. 오타 하나, 잘못된 해석 한줄도 공무원과 시장의 시빗거리가 된다.

숨가쁘게 지나간 4월에서 9월까지 업계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연합은 ‘성가’를 높였다. 3명의 기자가, 그것도 다른 출입처까지 복수 체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분량이나 아이템의 참신성, 정책 취재의 신속성 등 모든 면에서 앞서갔다.

기자 개인의 역량도 역량이지만 무엇보다 팀워크와 부처간 공조가 이뤄낸 결과다. 이 자리를 들어 정치부 노효동, 정윤섭씨와 경제부 윤근영 선배, 이상원, 경수현씨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윤근영 선배와 정윤섭씨는 탁월한 취재력과 기획력으로 당정청이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7.8월 연합이 기사를 선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모 신문사 선배와 건교부 1급으로부터 “도대체 연합은 부동산 기자가 몇명이냐”, “언제부터 특별취재팀을 가동한거냐”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같은 팀워크와 부처간 공조 덕이다.



유경수 산업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자 몇명만으로 증가하는 기사의 수요를 따라가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정책기사와 반응기사 뿐 아니라 시장과 독자들이 원하는 재테크 정보, 내집마련 전략 등을 포괄해서 깊이 있게 전달해주는 노력이 연합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연합기사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난’ (欄)이 없어 기사를 한참 찾아서 들어가야 하는 회사 홈페이지도 변화하는 시장에 뒤처지는 연합의 모습(다른 언론사 사이트를 비교해보라)을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 ■

특파원 코너

“두 딸 학비 때문에 국제학교 대신 인도학교 입학”

“이 녀석 도대체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내가 ‘인도녀석들’ 과 통화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뱉는 독백이다.

인도가 영어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하는 인도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설령 정확한 영어라 해도 인도식 영어인 ‘힝글리시’를 알아듣는 것은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

한번은 골프장에서 캐디(남자)가 ‘굿 샷 서’ 라고 하는데 한참을 생각하다 무릎을 쳤다. ‘공이 기막히게 날아갔다(good shot sir)’ 는 찬사였으니 발음은 ‘지랄’ 이지만 내가 성낼 일은 아니었다.

발음이 ‘갓뎀’ 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넵’ 도 없거니와 인도인들은 갈수록 영어 사용을 즐기고 이런 경향은 상류층이나 배운 사람일수록 심하다.

영어는 인도인에게도 분명 외국어일 뿐이지만 힌디어는 ‘상놈’ 언어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북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학술적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힌디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아빠 또 배가 아파”(딸)
“친구들 음식 얻어먹지 말라고 했지...”(나)

다른 주재원들이 예외없이 자녀들을 국제학교(아메리칸 스쿨)에 보내고 있고, 나 역시 부임하기 전에 두 딸의 입학 허가서를 미리 받아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고민하다 결국 인도학교에 집어넣었다.

사립학교인 델리 퍼브릭 스쿨(인도에서는 사립이

퍼브릭, 공립은 거번먼트 스쿨이다)인데 전교생 가운데 한국인은 내 딸들 뿐이다.

인도의 어느 학교(대학 포함)에도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없으며, 수업은 아침 일찍 시작해 오전에 모두 끝난다. 오전 10시가 간식 시간인데 두 딸이 내 명령을 어기고 친구들의 음식을 탐하다가 수시로 배탈이 난다.

땀띠는 기본이고 열을 많이 받은 날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린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애들이 갈만한 곳을 도무지 찾을 수 없고 오후 내내 대문 출입도 삼간 채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하니 두 딸은 죄 많은 아버지를 따라 서남쪽으로 흘러와 팔자에도 없는 귀양살이를 하는 셈이다.

하지만 고생끝에 낙은 오는 법.

딸들의 오후시간을 위해 오리지널 발음을 구사하는 한 가정교사를 1년째 붙여놨더니 애들이 어느덧 인도인과 만나면 인도식 영어, 미국인과 만나면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바이링구얼(bilingual)’ 이 되어 있었다.

해외에서 제작된 DVD를 자주 틀어준 것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문제는 우리 애들이 미국학교에 다니는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어를 주고받는 상대가 나와 마누라 뿐이다 보니 어느새 서울말은 잊어버리고 완벽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촌년들이 되어버렸으니 아이고...

귀국 후에 서울말을 익히면 4개 국어를 할 것이니 새삼 애용할 것은 없지만 입학 당일 내가 돌아설 때 인

도애들 틈에서 “아빠 정말 가는거야?” 라며 쳐다보던 큰딸의 원망스런 눈빛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정규득 뉴델리 특파원

마누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학교를 결정했던 것은 어린 애들에게 연간 4만달러를 투자하는게 과연 합리적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회사의 학비 보조금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어렵기는 했지만 강하게 키워 보겠다는 나름의 명분도 작용했다.

영어를 ‘송상’ 하는 인도의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이곳에는 다른 비영어권 국가와는 달리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학교의 특성상 오후시간을 사교육으로 채울 수 밖에 없다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사규는 이에 대한 보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왕 명석이 깔렸으니 하는 말인데 어차피 국제학교에 보내면 지원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규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자고 권하고 싶다.

인도의 경우 특수한 측면이 있으니 나는 아니라도(노가다로 치자면 거의 반대기대를 마쳤다) 후임자에게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인도에까지 와서 가산을 탕진할 수는 없지 않은가. ■



최전선에서

북핵등 현안쇄도, 팀워크로 대처 “기능중심 통합으로 시너지효과 발휘”



이귀원 통일외교팀

올해 한때 '6·7월 위기설' 또는 '대란설'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물론 6자회담 당사국간에 9.19 공동성명이 합의된 현 상황에서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북핵 문제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혹은 당연하게도 이 대란설이 다름아닌 통일외교팀을 덮쳤다. 특히 6월을 기점으로 굵직굵직한 통일·외교·안보 현안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쉴새없이 터져 나온 것이다.

1·2단계에 걸친 제4차 6자회담, 6월 17일 정동영 통일장관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등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뉴스거리였다.

여기에 연이은 남북장관급회담, 총 156권에 달하는 한일회담 외교문서 공개, 8.15 축전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 국정원 불법 도감청, 최전방 GP 총기난사사건...

통일·외교·국방부에서 마치 서로 바통을 주고 받듯이 파급력이 큰 기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때로는 '융단폭격' 식으로 일들이 동시다발로 터지기도 했다.

그러나 끊임없이 터지는 사건들에 치여 살면서도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있다.

다름아닌 지난해 6월부터 통일·외교·안보 기능이 통일외교부로 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통일외교부가 정치부내 팀으로 편제된 상태지만 어쨌든 통일외교안보 라인이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바통을 주고 받듯 이어지는 통일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어 출입기자는 물론, 회사도 상당한 애로를 겪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팀장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 팀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만큼 상당한 유연성과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현대사회의 또 다른 키워드가 된 '모듈식 팀'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자신의 출입처는 아니지만 통일·외교·국방 현

안에 늘 관심을 갖고 '유사시' 즉 각 투입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언론상황에서 통신사인 우리 회사는 부서와 출입처에 크게 상관없이 업무 로드가 끊임없이 가중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통일외교팀도 예외는 아니다. 이 같은 업무 부담은 앞으로도 강도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치열했던 지난 몇 개월에 이어 앞으로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제5차 북핵 6자회담 등 한반도의 지축을 흔들 중대 현안들이 버젓이 통일외교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팀원 중 한 선배는 입사 6년차이자 팀내 막내인 나에게 '탱크'라는 별명을 붙여줬지만 요즘은 사실 체력이 달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생은 사서한다'는 말도 있듯이 이 시기의 충분한 '담금질'이 앞으로의 기자생활에 큰 소양을 닦는다는 믿음으로 통일외교안보 전선을 사수하고 싶다.

최근 단체협약 개정 및 신설 주요내용 및 5년간 임금인상 내역

- 1. <편집권 독립과 공정정보도> 관련**
(기존)회사와 조합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민주언론의 창달을 위해 공정정보도의 실현이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임을 인정한다.
(개정)회사와 조합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민주언론의 창달을 위해 공정정보도의 실현이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임을 인정한다. 특히 노사는 어떤 경우라도 보도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하며 스스로 공정정보도에 저촉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기존)사장이 제작국장을 임면하고자 할 때는 7일전에 내정 각 1인을 노조를 통해 기자직 직원들에게 알리고 노조는 기자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사장이 제작국장을 임면하고자 할 때는 7일전에 내정 각 1인을 노조를 통해 기자직 직원들에게 알리고 노조는 사내계시판을 통해 재정자들에게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뒤 기자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 2. <인사> 관련**
(기존)신규채용은 채용규모와 직급에 관계없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

- 채 및 외부인사 영입시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친다.
(개정)신규채용은 채용규모와 직급에 관계없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채 및 외부인사 영입시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친다. 또한 채용시에는 노조와 사전협의의 거친다.
(기존)없음
(추가)가족중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가족을 간호할 필요가 발생한 남녀조합원이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때
- 3. <근로조건> 관련**
(기존)회사는 매년 1월 중 장기근속휴가 대상자로부터 휴가 희망날짜를 제출 받아 휴가실 시를 명한다.
(개정)회사는 매년 1월 중 장기근속휴가 대상자로부터 휴가 희망날짜를 제출 받아 휴가실 시를 명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당해연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해 실시한다.
(기존)장기근속휴가의 경우 만 10년 근속사원 9일이며 이후 매 5년마다 9일...
(개정)장기근속휴가의 경우 만 10년, 20년, 30년 근속사원은 12일이며 만 15년, 25년 근속사원은 9일이며 회사는

- 장기근속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장기근속휴가 실시를 이유로 연월차 휴가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 4. <임금 및 퇴직금> 관련**
(기존)없음
(신설)조합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 5.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관련**
(기존)회사는 조합원이....강습을 받을 경우 월 100,000원 이내의 강습비를 지급한다.
(개정)회사는 조합원이....강습을 받을 경우 월 300,000원 이내의 강습비를 지급한다.
- 6. <산업안전> 관련**
(기존)회사는 35세 이상인 사원에 대해 격년제로...종합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한다.
(개정)회사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종합건강진단을 받도록한다.
(기존)없음
(신설)회사는 사원들이 사고에 의한 재

해를 당한 경우와 중근취재에 대비해 국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한다.

- 7. <모성보호> 관련**
(기존)없음
(신설)새로 '제14장'을 신설함.

<최근 5년간 임금인상 내역>

| 연도 | 인상내역 |
|-------|--|
| 2000년 | 기본급 : 8% 인상 직무수당 : 35,000원 인상 |
| 2001년 | 동결 |
| 2002년 | 기본급 : 2% 인상 격려금 지급 : 기본급의 50% |
| 2003년 | 기본급 : 3.5% 인상 격려금 지급 : 정액 500,000원 급식수당, 공휴수당, 수시연장수당, 상시연장수당 등 조정 |
| 2004년 | 기본급 : 동결 격려금 지급 : 기본급 100% |

‘연합 참일꾼상’에 민족뉴스부 모니터링팀 수상

제2회 ‘연합 참일꾼상’에 편집국 민족뉴스부 모니터링팀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노조는 27일 오후 열린 집행부회의

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을 상대로 심도 있는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민족뉴스부 모니터링팀(임영순, 김

성환, 나기성, 김준영, 박도성, 나경근)은 24시간, 365일 계속되는 긴장과 격무속에서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포함해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신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신하며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발휘, 뉴스를 발굴해내는 한편 북한 당국의 입장을 시

의적절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는 점이 인정돼 수상자로 결정됐다.

특히 ‘북한의 숨소리까지 잡아낸다’는 경력 26년차의 임영순 팀장을 비롯한 6명이 팀원들이 십분 발휘하는 ‘팀워크’는 급변하는 언론환경속에서 연합뉴스가 나아가야할 지표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수상 소식을 전해들은 임팀장은 “불철주야 고생하는 팀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이해하고 전문성과 통찰력을 더욱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 참일꾼상 내규에 따라 민족뉴스부 모니터링팀은 단체 수상인 관계로 50만원의 상금 및 상패가 수여된다.

이달의 참글상

8월 이달의 참글상 수상작 없어...

‘이달의 참글상’ 8월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노조 공정보도위원회(간사 권정상)는 8월 송고분에 대한 후보작에 대한 심사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권정상 간사는 “지난 몇달간 후보작에 대한 추천을 독려했으나 예상보다 저조한 추천으로 지난 3월 이후 대상 수상자를 한번도 내지 못했다”면서 “대상 수상자에 해당되는 뛰어난 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각 공보위원들과 조합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9월 송고분에 대한 ‘이달의 참글상’ 마감은 10월10일까지다.



왼쪽부터 임영순팀장, 나경근·박도성·김성환사우, 나기성·김준영 사우는 야근근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

노조 감사, 노조 수입지출 ‘적정 평가’

노조 감사인 지일우·주중국 조합원은 9월 16일 노조 집행부의 금년도 상반기(3월부터 8월말까지 기준) 조합비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노조 감사들은 ▲총무(일반 운영비) ▲복지(비디오구입 및 자판기 수입) ▲대출(조합원 대출용 기금) 등 3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 노조의 전체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감사 결과 ▲총무 부분의 경우 수입 1억 450만 1천53원, 지출 1억1천280만8천 555원으로 830만7천502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 부분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각각 201만3천886원, 224만6천578원으로 23만2천692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집계했다.

조합원의 조합비 징수를 주 재원으로 하는 노조의 총수입은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적자를 기록하다 조합원들의 상여금이 몰려있는 하반기에 대폭 흑자로 돌아선다.

아울러 8월말 현재 대출금 총액은 1억7천619만556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8월말 현재 노조기금 총 잔액은 정기예금 2억6천만원을 포함, 총 3억4천626만7천596원(대출미수금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년도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52.73%

회사가 지난 5월 실시한 금년도 사원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비율이 지난해에 이어 5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나 사원들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진단 결과 전체 건강검진 사원 가운데 유소견자 비율은 52.73%(3백66명)에 달했으며 유소견 건수는 5백4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건 이상 유소견 판정을 받은 사원이 1백31명이었으며 최대 4건의 유소견 판정을 받아 ‘4관왕’ (?)에 오른 사원도 9명이나 됐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유소견자 비율은 각각 49.21%, 54.36%였다. 이에 따라 금년도 유소견자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선 조금 낮아졌지만 절반이 넘는 사원들이 각종 질병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소견 건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간장 질환 1백10건, 지방간 의심 45건, 고지혈증 2백29건, 고혈압 주의 62건, 당노질환 33건, 빈혈 8건, 신장질환 45건, 폐결핵 의심 11건 등이었다.

그리고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어 의사 상담후 치료가 필요한 사원의 비율은 8.21%였다.

병원측은 “연합뉴스의 경우 금년부터 전 사원이 종합건강검진을 받아 검진의 폭이 넓어진 관계로 유소견 건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지난해에도 유소견자 비율이 54%에 이른 것으로 볼 때 사원들의 건강이 전반적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년의 경우 7백2명의 건강진단 대상자 가운데 6백94명의 사원이 건강검진을 받아 실시율이 98.86%에 달했다.■

이달의 조합활동

● 9월 1일 : 전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피크제 찬반투표 결과 75% 가량의 사원들이 찬성사를 밝힘에 따라 정재용 위원장과 장영섭 사장이 조인식을 갖고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노사합의문’에 공식서명.

● 9월 7일 : 정위원장과 도시무국장은 경남지사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회사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지사 사원들이 전원 참석했으며 주당(?)이 많다는 소문에 걸맞게 끊임없이 술잔이 오가기도..



● 9월 13일 : 집행부회의를 열어 뉴스통신진흥회 구성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노조 명의의 성명을 채택..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여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뉴스통신진흥회가 특정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등 ‘옥상옥’으로 작용해선 안된다는 점을 지적. 성명은 특히 시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9월 16일 : 노조 감사인 지일우, 주중국 조합원으로부터 상반기 회계감사를 받아... 총무, 복지, 대출 3개항목에 걸친 감사결과 ‘적정’이라는 평가를 받음.

● 9월 20일 : 정 위원장은 임·단협을 앞두고 특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 특파원에게 메일을 보내 각 지역의 고충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도록 요청.

● 9월 27일 : 집행부회의를 열어 제2회 ‘연합 참일꾼상’ 시상자를 선정하고 임·단협을 앞두고 실시할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 토론..

● 9월 28일~29일 : 언론노조 부위원장인 정위원장은 충북 단양에서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 하반기 언론노조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